우리 사전은 우리 겨레가 만들어야

_ 정재도 / 한말글 연구회 회장

우리 사전들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엮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도 있다. 우리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주로 한자말로 나타낸다.

'모욕'이 20세기 초에도 쓰였으나 '목욕'이라는 한자말에 밀려 옛말로 돌아가고 말았다. '곳'은 한자말 '처소'에 치이다가 일본말 '장소'에 눌려 반병신이 되어 있다. 우리가 애써 만든 '처지'도 '입장'이라는 일본말 그늘에서 깔딱거리고 있다. '가호'를 만들어 놓았는데 '가족·식구'라는 뜻의 한자말 '가구'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구실'이 제 구실을 못하고 '역할'이라는 일본말에 파묻혀 간다.

이러한 몰골들이 우리 사전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 겨레의 어떤 동아리는 '한나라'의 '한겨레'로서 '한말'과 '한글'을 붙들고 '얼 · 말 · 글'을 지켜 내려온다.

'가물치'를 잡아먹으려고 한자말로 '뇌어, 대포어, 동두어, 동어, 수염, 여어(2), 예어, 오례, 오린, 익어, 정어, 현례, 화두어, 흑례, 흑어' 들을 만들고 끌어들여 난장판을 이루고 있으나, 어떤 동아리가 한자로 '가무치', '감을치'들까지 만들어 맞서 '가물치'를 살려 내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을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가지고 엮는다고 하니, 그것들을 참고로 하여 남북 사전에 대한 생각과 발전, <겨레말큰사전>에 바라는 것들을 적어 볼까.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표>로, <조선말대사전>을 <조>로 나타낸다.)

우리말 '당기다'의 일본말이 '힛파루'다. '引っ張る'라고 적는다. 한자말로는 '견인(牽引)'이다. 그것을 어찌하려고 했는지 <조>에

引張 : (다듬은 말로) 당김
引張力 : (다듬은 말로) 당김힘

이라고 올렸다. 일본말을 일본한자말로 만든 것이다. '다듬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당기다'로 '당김', '당김힘'이라고 하면 그만인 것을……. 그러나 그나마 '당김', '당김힘'이라고 하라고 했지, '인장', '인장력'이라고 하라고는 하지 않았고, (물론, '引張'이라는 한자말은 없다.) 그냥 '당김'과 '당김대, 당김선, 당김 세기, ……' 등 섞임말 16개를 만들어 그것이 <표>에도 실려 있다.

그런데, <표>에서 허깨비 '引張'을 만들어 그것에다가 <조>에 있는 '당김'의 풀이를 옮기고, 그 '引張'에 '引張强度, 引張材, 引張鐵筋' 들을 만들어 보탰다.

<조>는 '引張'이라는 이상한 것을 올려 놓았으나 쓰지 않고 우리말 '당김'을 내세웠는데, <표>는 거꾸로 없는 '引張'을 만들어서 한자말이라고 내세워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支拂'의 '拂'에는 먼지를 '떤다'라는 뜻은 있어도, 돈을 '치른다'라는 뜻은 없다. 그런데 일본말로는 먼지를 '떨다'도 '하라우', 돈을 '치르다'도 '하라우'다. 그러므로 소리가 같아서 '拂'을 '치르다'에도 쓴다. 우리는 '떨다'를 '치르다'라고 하지 않는다. '拂'을 '치르다'에는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支拂'을 쓰면 잘못이다. 중국에서도 '치르다'를 '즈푸(支付)'라 하고, 소리가 같아도 '즈푸(支拂)'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말 '支拂'을 1980년대에 법제처에서 '지급(支給)'으로 다듬어서 지금 그렇게들 쓰고 있다. 그런데 <표>는 '支拂'도 <조>에 있는 그대로 쓰고 있으며, 더 확대하여, 그 섞임말도 여태 있던 '지불거절증서', '지불보증, 지불수형, ……'들 13개, 새로 만든 '지불거절, 지불계획, 지불금, 지불기, ……'들 19개를 써도 되는 것처럼 다 싣고 있다.

사전이나 말을 이렇게까지 망친다면 나라와 겨레의 체면과 문화는 어찌 되는 것인가.

우리말이 있는 것은 한자말로 바꾸지 말고, 우리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한자로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표>의 다음 한자말은 우리에게는 없어도 되므로 지워 없애야 한다.

牛角(쇠뿔), 羽角(뿔털), 雨脚(빗발), 牛角灸(쇠뿔뜸), 羽幹(깃대),
雨季(장마철), 牛骨(쇠뼈), 牛骨油(쇠뼈기름), 牛黃(소미역),
羽冠(도가머리), 禹韭(겨우살이 풀), 右弓(오른살), 尤極(더욱),
尤隙(말다툼), 牛筋(쇠심), 羽根(깃뿌리), 藕根(연뿌리),
牛筋木(박달나무), 牛筋菜(심나물), 雨期(장마철), 偶鰐(짝지느머리)

('우가'와 '우기' 사이에 있는 말들이다.)

| 정재도 |
한글학회 사전 편찬, 국어심의회 심의위원, 외솔회 이사, 한글재단 감사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국어의 갈길>, <국어 사전 바로잡기>, <우리 말글 바로 알고 옳게 쓰자>, <우리 말글의 갈길> 등이 있다.

121-719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재정회관빌딩) | 대표전화 02-3275-0815 | 전송 02-3275-3715

Copyright©2012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반듯과 분명

_ 조재수 /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 위원

반듯한 물체는 어디가 기울거나 굽거나 이지러짐이 없다. 반듯한 생각과 분명한 행동은 개인이나 사회를 바로 서게 한다. 말과 글도 그 형식이 반듯하고 내용이 분명해야 순조로운 소통을 할 수 있다. 조리가 정연하고 표현이 분명한 말이 반듯한 말이다.

프랑스어는 18세기부터 국제언어로 지위를 굳혔다. 그런 프랑스어에 대해 1783년 베를린 학술원이 "무엇이 프랑스어를 세계어로 만들었느냐?"에 대한 해답을 현상 모집한 일이 있었다 한다. 이에 가장 우수한 해답은 긴 논문으로가 아니라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알려 온, '정확성', '평이성', '합리성'에 있다는 것이었다. <Crane Brinton, John B. Christopher, Robert Lee Wolff: A History of Civilization>(양병우, 민석홍 외 옮김: 세계 문화사. 을유문화사. 1971. 中권 389쪽)에서 간추림.

한 언어의 우수성을 '정확하고', '쉽고', '합리적인' 특성에 있다고 한 것은 그 언어 하나하나의 됨됨이(형태)나 지닌 뜻바탕이 정확하고, 쉽고, 합리적임을 말해 준다. 말의 형태와 의미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고 이치에 잘 맞는 언어야말로 잘 가꾸어진 '반듯한 언어'라 하겠다.

우리말의 세계적 지위는 어떠할까? 남과 북, 해외 동포 사회까지 아울러 7,500만이 쓰는 언어로 사용 인구로는 세계 12위, 상위권에 든다고 한다. 언어의 고유성과 자기 언어에 대한 애착심 등으로는 어떠하며, 위에서 본 언어의 정확성, 평이성, '합리성'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언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물음이라 생각한다.

국어는 겨레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국어도 돌보고 가꾸어야 꽃처럼 피어난다. 말을 가꾼다는 것은 말을 캐고 정리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전 편찬인은 늘 겨레말을 캐고 또 반듯하게 정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찌, 사전 편찬인 뿐이랴.

우스꽝스럽다 / 우습광스럽다(?)

우스운 정도가 심하여 매우 우습거나 가소로울 때 흔히 "우스꽝스럽다"고 한다. 그런데, 이 '우스꽝스럽다'의 말 짜임새가 좀 묘하다. '우습다'의 불규칙 어간에 접미사로 보이는 '-꽝'과 '-스럽다'가 붙은 말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말에 '객광스럽다', '밉광스럽다'가 있다. '객광스럽다'는 '객스럽다'와 비슷한 말로, 꽤나 실없거나 쓸데없다는 뜻의 말이며, '밉광스럽다'는 매우 밉살스럽다는 말이다. 여기 '-광'은 어떤 정도가 심함의 뜻을 나타내고, '-스럽다'는 어떤 특성이 있어 보임을 나타내는 낱말 조각(형태소)이다. '어리광스럽다' 역시 같은 짜임새이나 '객광-', '밉광-'과는 달리 '어리광'이 먼저 명사로 익어졌다. 이들로 보면 '우스꽝-'을 '우습광-'으로 적을 만 한데 그렇지가 못하다. 사전에 다루어 온 자취를 보자.

<문세영 사전>(1940)은 '**우슙강스럽다**'로 올렸다.

한글학회의 <큰사전>(1957)과 북의 사전에는 '**우습강스럽다**'로 올렸다.

북에서는 '**우습강**'을 명사로 '우습강을 부리고, 떨고, 피운다' 등으로 쓴다. '우스개'와 비슷한 말이다. 연변 동포 작가 글에서도 '우습강'을 볼 수 있다. "호호호—철호 동무도 꽤 **우습강**을 잘하는군요. …" <김경모: 청산의 매>(연변. 1979)"

'우습강스럽다'가 한글학회 <중사전>(1958)에 와서 오늘날 쓰는 '**우스꽝스럽다**'로 바뀌었는데 그 경위는 알 수가 없다.

이 '우스꽝스럽다'가 <국어대사전>(민중서관, 1961~71년)에는 '**우습광스럽다**'로 되고 '우스꽝스럽다'는 '우습광스럽다'의 변한말로 보였다. '**우습광스럽다**'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1992)도 '**우습광스럽다**'를 표준으로 올렸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스꽝스럽다**'가 자리를 지켜온다. <국어대사전>도 나중 나온 민중서림 판(1982)부터는 전날에 바로잡았던 것을 후퇴하여 '**우스꽝스럽다**'에 풀이를 보였다.

꽤나 우여곡절을 겪은 말이다. '우스꽝-'을 '우습광-'으로 고쳐 잡고, <큰사전>(1957)과 북녘의 '우습강-'과 어울러서 표준을 정하면 좋을 것 같다. '미나리-꽝'<남>과 '미나리-깡'<북> 같은 말도 그렇다. 마침 겨레말 큰사전 남북 표기 분과 위원회는 '우스꽝스럽다'와 '미나리깡'을 합의안으로 정한 바 있으나, '우스꽝스럽다'를 '객광스럽다', '밉광스럽다'와 한가지로 '**우습광스럽다**'로 재론해 봤으면 싶다. 북녘에서 써오는 명사 '우습강'도 '우습광'으로 통일하면 '어리광'과 함께 가지런해지겠는데, 지나친 획일주의일까? 다음을 참고해 보면 무리도 아닐 것 같다.

우리말에 '-광이'가 붙어 '어떤 성질이나 정도가 심한 사람'을 나타내는 파생어가 있다. '**미치-광이**', 느림보와 비슷한 말인 '**느리-광이**', 평북말로 얼뜬 사람을 이르는 '**어리-광이**' 등이다. 또 평안도 말에 '무식쟁이'를 이르는 '어드-꽝이'가 있는데 이 역시 '**어둡-광이**'에서 온 말일 듯 하다. 이상의 '-광'과 '-광이'를 '색광(色狂)'의 한자 '狂'으로 유추하지 말기 바란다.

한편, '엉뚱하게 괴상하다'를 이르는 '**괘꽝스럽다**'와 '여우'의 방언 '**여꽝이**'는 '-꽝-'으로 굳어진 말로 보인다. 참고로, 남녘에서 이르는 '말라-깽이'를 북에서는 '**말라-꽹이**'라 한다. 우리말의 소리 하나하나는 그냥 빈 소리가 아니다.

진무르다, 짓무르다, 짓물다

'**진무르다**'와 '**짓무르다**'는 뜻이 다르고 발음은 같은 낱말이다.

<문세영 사전>(1938)에는 '진무르다'만 올려 "살이 상하여 문드러지다"라 풀이했다.

<큰사전>(한글학회. 1957)과 <국어대사전>(이희승. 1961)에는 '짓무르다'를 올려 '진무르다'의 사투리로 보였다. <큰사전>은 '진무르다'를 "살이 상하여 문드러져 진물이 나다"라 풀이했다.

북의 <조선말 사전>(1962)에는 반대로 '짓무르다'를 규범어로 올려 "살갗이 몹시 헐어서 진물진물하게 되다"라 풀이했다.

<문세영> 외 세 사전은 앞의 말조각 '진-'과 '짓-'을 뜻이 같은 형태소로 본 것 같다. 그러나 둘은 다르다.

북의 <현대조선말사전>(1981)에 와서 두 말은 서로 다른 말로 바르게 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 있다.

> '**진무르다**'는 살갗이 헐어서 진물진물하게 되다.
> '**짓무르다**'는 몹시 물렁물렁해지거나 물크러지다. [용례] **짓물러**빠진 도마도.

로 구분해 올렸다.

여기 '진무르다'의 '진-'은 살갗이 헐어서 나는 '진물'의 '진-'이며, '짓-'은 '짓누르다', '짓밟다' 등에서처럼 '함부로(마구)', '몹시'의 뜻으로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접두사다. '접두사'를 최현배는 '앞가지', 북에서는 '앞붙이'라 한다.

'진무르다'는, *눈이 **진무르고** 피골이 상접해서 <박경리: 토지>, *한번 **진물러** 터진 살갗은 아물지를 않았다 <한승원: 해일> 등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짓무르다'는, *__짓물러__빠진 도마도 <북녘 사전>, *감은 한차례 눈을 맞아서인지 태반이 **짓물러** 있었다 <공선옥: 홀로어멈>, *몸은 멀쩡하나 마음은 **짓물러**터져 흐늘흐늘하고, <김원우: 우유도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둘을 분간하지 못하고 쓴 예가 많다는 점이다. 아래 인용례에서 괄호 안에 '->'로 보인 것이 바른 표기임을 참고하기 바란다.

> *쉬지 않고 새어 나온 물은 사방에 새어 들었다. 기둥뿌리를 썩히고 집을 앉힌 단단한 지반을 묵처럼 **진무르게**(->**짓무르게**) 했다. <현기영: 아내와 개오동> *올 계울(겨울)에도 눈이 **짓무르게**(->**진무르게**) 베를 짜겠구나(짜겠구나). <박경리: 토지> *로인(노인)은 … **짓무르기**(->**진무르기**) 시작한 눈귀로 연방 이슬이 괴여(괴어) 떨어졌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북녘 소설) *하도 자리를 뜨지 않고 서화에 열중하는 바람에 여름이면 엉덩이께가 견디기 힘들 만큼 **짓물렀고**(->**진물렀고**), <이문열: 금시조>

더하여, '**짓물다**'에는 두 동음어가 있다.

입술을 '짓물고', 어금니를 '짓물었다' 하는 '짓물다'는 '물다'에 접두사 '짓-'이 붙은 파생어로 '세게 물다'라는 뜻의 말.

또 하나의 '짓물다'는 '물어도 준치 썩어도 생치'라는 속담에 나오는 '물다'에 접두사 '짓-'이 붙은 말. 이 '물다'는 '습기나 열로 말미암아 떠서 상하다'라는 말이며, '짓물다'는 그 상한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두 '짓물다'는 뜻이 전혀 다른 말이기에 잘못 쓰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짓물다'와 앞에서 본 '진무르다, 짓무르다'의 활용형의 쓰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진물러'는 '진무르다'의 불규칙 활용형, '짓물러'는 '짓무르다'의 불규칙 활용형, '짓물어'는 '짓물다'의 활용형이다. 아래 인용례에서 괄호 안에 '->'로 보인 것이 바른 표기임을 참고하기 바란다.

> *물 좋은 생선과 **짓물어서** 상한 생선 <조선말대사전>(북. 1992)
> *나는 월곡댁의 **짓물러진**(->**진물러진**) 눈가장이(눈가)에 흠뻑 젖어 있는 눈물을 훔쳐보았다. <송기원: 배소의 꽃> *하지만 불그레 **짓물러진**(->**진물러진**) 그의 눈 속에선…. <김흥익: 살아계시다>(북. 1995) *높은 열 때문에 터진 입술은 **짓물러져**(->**진물러져**) 있다. <김향숙: 침묵의 바다> *처녀는 빨갛게 **짓물린**(->**진무른**) 눈으로 불 속을 이윽히 들여다보다가 침울하게 말을 꺼냈다. <김호석: 버드나무 아래서>(북. 1979) *배종두는, 발가락이 동상으로 **짓물어진**(->**진물러진**) 데다 영양 실조로 늘어져 누워 있는 산에 두고 온 박귀란을 생각하고 있었다. <김원일: 불의 제전>

'진무르다'와 '짓무르다'를 제대로 밝혀서 보인 북의 <현대조선말사전>(1981) 이후의 사전들에는 어떻게 보완되었을까? 아쉽게도, 보완이 아니라 개악이 되고 말았다.

북의 <조선말대사전>(1992)에는 둘을 구분해 올리되 '**짓무르다②**'에 '**짓물다**^1②'를 동의어로 대어 '**진무르다**'와 섞여 있다. 그 '짓물다^1②'의 용례를 보면 '**진무르다**(진무르니, 진물러)'에 해당하는 것이다. 남녘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짓무르다**'에 '**진무르다**' 등이 섞여 있으며, '**진무르다**'는 아예 '짓무르다'의 잘못이라 했다. |주| 지면 관계로 그대로 인용해 보이지 못함.

정확하지 못한 낱말 지식, 갈피가 분명치 못한 사전의 풀이, 더욱 익히고 다듬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덧붙이는 말] 우리말 동사, 형용사는 사전에 '~다' 기본형으로만 올려진다. 위에서 본 '진물러'와 '짓물러'를 사전에서 찾아 보려면 '진물러'는 '진무르다'에, '짓물러'는 '짓무르다'에 가서 예문을 통해서나 겨우 볼 수 있다. 용언의 불규칙 활용형을 모르는 대다수 이용자에게는 불편한 일이다. 이에 대한 사전적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 올해부터 연재되었던 '조재수의 국어사전 이야기'는 이번 호부터 **'국어사전 돋보기'**로 제목을 바꿔 진행합니다. 국어사전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으로 붙인 제목입니다. 대신 '조재수의 국어사전 이야기'를 따로 발행하여 7월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121-719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재정회관빌딩) | 대표전화 02-3275-0815 | 전송 02-3275-3715
Copyright©2012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같으면서도 다른 단어들

_ 강보선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남북한 어휘 중에는 형태와 의미가 동일한 단어들(동형동의어)이 많이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남북한 사전에서 뜻이 거의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사전을 비교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남북한 동형동의어(同形同義語)로 분류되는 단어 중에는 실제로 남북에서의 쓰임이 일부 차이 나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전의 뜻풀이 비교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당 단어가 실제로 사용된 여러 용례들을 분석하여 미묘한 차이를 밝혀 낼 수밖에 없다. 필자는 북한의 문학 작품, 신문, 영화 등에서 남한과의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을 찾아내고, 이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의 도움을 받아 10여 명의 새터민에게 차이 여부를 검증받아 보았다. 그 결과, 동형동의어로 분류되는 단어들 중에는 의미, 용법, 빈도 등에서 남북이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미의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단어로는 '소행(所行)', '늙은이' 등이 있다. '소행'은 남한에서는 부정적 의미를 주로 지니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부정적, 긍정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무책임한 소행'은 자연스러운 반면 '아름다운 소행'은 부자연스럽지만 북한에서는 '아름다운 소행'과 '무책임한 소행'이 모두 가능하였다. 남한의 '선행상'에 해당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소행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북한에서는 '소행'이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늙은이'의 경우, 남한에서는 '늙은이'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때때로 중립적인 의미인 '노인'을 사용하나 북한에서는 '늙은이'에 부정적인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 문학에서는 "늙은이들은 낡은 것이라도 손때 묻은 것은 귀중히 여긴다.", "늙은이, 젊은이, 아이할 것 없이 명절날 같이 바빠 돌아가며 분주히 드나든다."와 같이 '늙은이'가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 예들이 많이 보였다.

남북에서의 '용법' 차이를 보이는 단어로는 '살찌다', '머리' 등이 있다. 남한에서는 "살찐 송아지", "왜 이렇게 살쪘니?"처럼 '살찌다'를 동물과 사람에게 두루 사용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주로 동물에게만 '살찌다'를 사용하고 사람에게는 '살찌다' 대신에 '몸이 나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남한에서는 "돼지 머리", "철수의 머리가 크다"처럼 '머리'를 동물이나 사람에게 모두 사용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머리'를 사람에게만 사용하고, 동물에게는 철저히 '대가리'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새터민들은 남한에서 사용하는 '소머리 곰탕', '돼지 머리 국밥'이라는 표현이 매우 낯설게 여겨진다고 하였다.

남북 사전에 모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지만 사용 빈도가 다른 단어도 있었다. 예를 들어 '끝물', '싸다'는 남한에서는 많이 사용되나 북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에 '끝물', '싸다'의 동의어인 '막물', '눅다'는 남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북한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휴일에 일한 대신으로 얻는 휴가'라는 뜻을 지닌 '대휴', '불법'이라는 뜻의 '비법', '자신감'을 뜻하는 '자신심'의 경우 남한에서보다 북한에서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남북한 사전 모두에 동일한 의미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 중에는 남한과 북한 어느 한 쪽에서만 유독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남북에서의 쓰임이 동일하다고 생각해 온 단어들 중에는 실제로 의미, 용법, 빈도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나는 단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정확하게 밝히는 일은 남북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또 '겨레말큰사전'과 같은 남북 공동 사전의 편찬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져야 하겠다.

| 강보선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 "남북한 언어 통합과 어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저로는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이 있다.

Copyright©2012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꽃뱀

_ 이길재 / 겨레말큰사전 새어휘팀장

푸른색, 빨강색이 선명한 **{꽃뱀이}** 막대기에 둘둘 말려져 있다. 《신경숙: 밤고기》

초록빛 아오자이에 비친 브래지어 끈이 **{꽃뱀처럼}** 꿈틀거렸다. 《박영한: 머나먼 쏭바강》

요즘 말로 하자면 **{꽃뱀이었다}**. 유부남과 붙어놓고는 돈을 뜯었다는 것이다.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신경숙과 박영한의 소설에 등장하는 '꽃뱀'은 파충류이지만, 김소진 소설에 등장하는 '꽃뱀'은 포유류인 사람이다. 후자의 '꽃뱀'은 ≪우리말큰사전≫(1992)에서 **'<남자에게 짐짓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일컫는 곁말'**과 같이 풀이하여 처음 실은 낱말이다. 이후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후자의 '꽃뱀'과 함께 전자의 '꽃뱀'인 **'피부에 알록달록한 빛깔을 가진 뱀'**과 같은 뜻을 더하게 된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도 ≪표준국어대사전≫과 마찬가지로 '꽃뱀'의 첫 번째 뜻을 **'알록달록한 빛깔의 뱀'**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기억하고 있는 꽃뱀은 막연히 '알록달록한 빛깔의 뱀'이 아니다. 신경숙의 소설 ≪밤고기≫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꽃뱀'은 '푸른색 또는 검푸른색 바탕에 빨강색 무늬'가 있는 왼쪽의 그림과 같은 뱀이다.

'꽃뱀'을 단순히 그와 대응하는 한자어로 바꾸면 '화사(花蛇)'인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산무애뱀'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산무애뱀'은 '갈색 바탕에 검은색 또는 갈색 무늬가 많은' 뱀이다. 네 개의 검은 줄무늬가 머리에서 꼬리까지 있는 뱀으로 '꽃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화사'가 사전에 처음 실린 것은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큰사전≫(1957)으로, '화사'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 **화사**(花蛇) [이] ≪한의≫ 산무애뱀. 풍증(風症) 문둥병을 다스리고, 보신 장양제(補身壯陽劑)로 쓰임. 그 모양에 따라 흑화사(黑花蛇), 백화사(白花蛇), 흑질백장(黑質白章) 들이 있음.

≪큰사전≫에 의하면 '화사'는 세 가지 종류의 뱀, 즉 '흑화사, 백화사, 흑질백장'인데, 이들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 **흑질-백장**(黑質白章) [이] ≪한의≫ 검은 바탕에 배에 희게 무늬가 있는 산무애뱀을 한의학에서 이르는 말. ~.
> **흑화사**(黑花蛇) [이] ≪한의≫ 먹구렁이를 한의에서 이르는 말. ~.
> **백화사**(白花蛇) [이] ≪동≫ =산무애뱀.

따라서 '화사'는 살갗 모양이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산무애뱀'과 '먹구렁이(누룩뱀)'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에 의하면, 백화사는 '갈색 바탕에 검은색 또는 갈색 무늬가 많고, 네 개의 검은 줄무늬가 머리에서 꼬리까지 있는' '화사'이며, '흑질백장'은 '검은 바탕에 배에 흰무늬가 아롱진' '화사'이며, '흑화사'는 '밤색 바탕에 어두운 갈색의 가로무늬가 있고 배의 각 비늘에는 검은 무늬가 있는' '화사'이다.

이 세 종류의 뱀의 특징을 한 마디로 아우를 수 있는 말은 '알록달록'이다. 즉 '화사'는 '알록달록한 살갗'을 가진 뱀들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말큰사전≫ 이후에 나온 사전들에서 '꽃뱀'은 '알록달록한 빛깔을 가진 뱀'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말큰사전≫ 이후 사전 편찬자가 '꽃뱀'의 또 다른 뜻을 풀이하려고 '화사'를 '꽃뱀'으로 직역하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꽃뱀'은 세간의 뉴스거리가 되어 ≪우리말큰사전≫에 실리기 훨씬 이전부터 필자가 써온 말인데, 이는 '율모기(유혈모기)'를 달리 부르던 말이다(물론 이러한 사실은 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사전에 실린 단어들의 뜻풀이를 고치기란 그리 녹녹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전의 뜻풀이를 받아들여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간행될 사전에서는 '꽃뱀'을 풀이할 때 **'<율모기>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더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견해일 뿐이다. <겨레말큰사전>의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121-719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재정회관빌딩) | 대표전화 02-3275-0815 | 전송 02-3275-3715
Copyright©2012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 겨레말 소식

사업회는 지난 4월 27일 제56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홍종선 남측편찬위원장, 조재수 편찬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올림말팀 등 각 팀별로 사업회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새어휘팀은 지난 5월 10일 신규 용역 연구원을 대상으로 <새어휘 조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새어휘 조사 방법, 새어휘 입력 시스템 등을 소개하였다. 교육을 받은 용역 연구원들은 문헌어 새어휘 조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5월 11일에는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사업회 직원 단합대회를 가졌다. 직원들은 함께 춘천의 청평사를 찾아가 보물 제164호인 청평사 회전문, 극락보전, 3층 석탑 등의 문화재를 둘러 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한국 대표적인 단편문학작가인 김유정 문학촌을 방문하여 생가와 소설 등이 전시되어 있는 기념관을 관람하였다. 이날 직원들은 맑은 공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단결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21-719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재정회관빌딩) | 대표전화 02-3275-0815 | 전송 02-3275-3715
Copyright©2012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